

## 熨法에 관한 文獻的 考察

지선영 · 이병욱 · 김상찬 · 변성희 · 김한균 \*

### Bibliographic Study on Wibub(熨法)

*Seon-young Jee · Byung-wook Lee · Sang-chan Kim · Sung-hui Byun · Han-kyun Kim \**

**Object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nsider classification of Wibub(熨法), heating method of Wibub(熨法) and the diseases for which Wibub(熨法) is efficacious through bibliographic basements.

**Methods:** We bibliographically studied on Wibub(熨法) through 20 existing oriental documents.

**Results:** Summarized as follows;

1. Wibub(熨法) is an external therapy of applying heated herbal powder or granules wrapped in a cloth or applying heated implements to the affected part.

2. Wibub(熨法) is divided into two types. One is Yakwi(藥熨) which uses medicine, the other is Wibub(熨法) which only uses implements.

3. The heating methods of Wibub(熨法) are various. there are using directly heated medicine, using heated implement and using Naengwi(冷熨) and Yeolwi(熱熨) in turns.

4. Wibub(熨法) is efficacious for mammary disease like as acute mammaritis, mastitis, anal disease like as hemorrhoids, proctoptosis, sore, muscle disease, multiple abscess, pyogenic infection of bone, gonarthritits externally and efficacious for cold paralysis, cold limbs, vomiting with diarrhea, mass in abdomen, abdominal pain, constipation, urinary disease like as dysuria, ischuria internally.

**Conclusions:** As the aboves. Wibub(熨法) is able to be used variously in clinical cases. so we consider that it is necessary to study methods which improve practical use of Wibub(熨法).

---

**Key words :** Wibub(熨法), Classification, Heating Method, Indication

---

\*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구미한방병원 안이비인후과교실, 제한동의학술원  
· 교신저자 : 지선영,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458-7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구미한방병원 안이비인후과교실,  
(Tel : 054-450-7706, E-mail : jeesy@dhu.ac.kr)

## 서론

熨法은 藥物을 炒熱 혹은 蒸煮하여 布로 싸거나 物品을 가열한 후에 직접 환부에 접촉하여 溫熱자극을 가하는 일종의 치료방법으로 고대 殷商시대의 甲骨文에서부터 藥熨法으로 질병을 치료한 것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의 여러 문헌에서 질병치료에 사용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sup>1)</sup>.

熨法을 포함하는 外治療法에 대한 수많은 임상적인 연구자료가 역대문헌에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膏藥이나 散劑의 外治療法만이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熨法을 포함한 기타 外治療法의 사용은 보편화되지 않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sup>2)</sup>.

이에 논자는 熨法에 대한 한방적 인식을 넓히고 熨法을 이용한 外治療法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熨法에 대한 文獻考察을 실시한 결과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 조사대상 및 방법

### 1. 調査對象

調査對象은 熨法에 관한 언급이 있는 근대 이전의 문헌 20종으로 하였으며 본론에서 참고한 서적은 다음과 같다.

- 1) 黃帝內經 素問
- 2) 黃帝內經 靈樞
- 3) 肘後備急方

- 4) 小品方
- 5) 諸病源候論
- 6) 外臺秘要
- 7) 備急千金要方
- 8) 聖濟總錄
- 9) 普濟本事方
- 10) 世醫得效方
- 11) 外科精義
- 12) 薛氏醫案
- 13) 醫學入門
- 14) 萬病回春
- 15) 六科證治準繩
- 16) 外科正宗
- 17) 東醫寶鑑
- 18) 證治彙補
- 19) 瘍醫大全
- 20) 外科選要

### 2. 調査方法

熨法의 종류, 溫熱방법, 적응증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본론

### 1. 黃帝內經 素問<sup>3)</sup>

[血氣形志論]

形苦志樂, 病生于筋, 治之以熨之.

### 2. 黃帝內經 靈樞<sup>4)</sup>

[壽夭剛柔篇]

黃帝曰 刺寒痺內熱奈何?

伯高答曰 刺布衣者，以火焯之。刺大人者，以藥熨之。

黃帝曰 藥熨奈何？

伯高答曰 用淳酒二十斤，蜀椒一升，乾薑一斤，桂心一斤，凡四種，皆咬咀，漬酒中，用綿絮一斤，細白布四丈，并內酒中。置酒馬矢燼中，蓋封塗，勿使泄，五日五夜，出布綿絮，曝乾之，乾復漬，以盡其汁。每漬必，其日，乃出乾。乾，并用滓與綿絮，複布爲複巾，長六七尺，爲六七巾，則用之生桑炭炙巾，以慰寒痺所刺之處，令熱入至于病所，寒復炙巾以慰之，三十遍而止。汗出，以巾拭身，亦三十遍止。起步內中，無見風。

[刺節眞邪篇]

治厥者，必先熨調和其經，掌與腋，肘與脚，項與脊以調之，火氣已通，血脈乃行。

上熱下寒，先刺其項太陽，久留之，已刺則熨項與肩胛，令熱下冷乃止，此所謂 推而上之者也。

### 3. 肘後備急方<sup>5)</sup>

葛氏婦人乳癰妬腫

削柳根皮熟搗火溫帛裹貯熨之冷更易大良。

又云二三百衆療不差但堅紫色者用前柳根皮法云熬令溫熨腫一宿愈。

### 4. 小品方<sup>6)</sup>

[治乳癰妬乳生瘡諸方]

又方

柳白皮，酒煮令熱，以熨上則消。

[治顏脫肛痔下部諸疾驗方]

若腸隨肛出方

熬石灰令熱，布裹熨之，隨按令入，冷則易。

### 5. 諸病源候論<sup>7)</sup>

[虛勞陰下痒濕候]

大虛勞損腎氣不足故陰冷汗液自泄風邪兼之則搔癢其湯熨針石別有正方補養宣導今附於後。

### 6. 外臺秘要<sup>8)</sup>

[諸痔方二十八首]

熨痔法，痔頭出，或疼痛不可堪忍方

取枳實，煨灰中煨之，乃熱熨病上，盡七枚，立定，發則熨之，永除也。

[肛門凸出方三首]

肛門凸出，壁土散方

故實東壁土 一升，碎研 皂莢 三挺，長一尺二寸者

右搗土爲散，搗粉肛門頭出處，取皂莢灸燬，更熨之遞，取入則止。

[乳癰腫方十八首]

覺痛色未變時，以飼豬米研汁，飲之，則瘥。仍取豬槽木厚如匙面，火炙，數數熨上。

### 7. 備急千金要方<sup>9)</sup>

[治妬乳乳癰腫方]

生地黃 三升，芒硝 三合，豉 一升

右取研末槌二枚炙令熱以絮及故帛噲乳上以槌更五熨之瘥止已用立效。

### 8. 聖濟總錄<sup>10)</sup>

[小便不通]

治膀胱積熱，風毒氣脹

小便不通方

秦艽 去苗一分 冬葵子 一兩

右取葱津一蛤蜊殼許，入膩粉調如泥，封臍內，以裹肚系定，熱手熨，須臾即通。

[氣痔]

治氣痔脫肛

熏熨方

枳殼 麩炒 防風 去叉 各一兩 白礬 熬令汁枯一分研

右三味，除白礬外，搗爲粗末，入白癥拌勻，水三碗，煎至二碗，乘熱熏之，仍以軟帛蘸湯熨之，通手則淋洗。

[痔漏疼痛不可忍]

治諸痔有頭，疼痛不可忍

枳殼散熨方

枳殼 四兩 訶黎勒皮 二兩

右二味，粗搗篩，同炒令熱，以綿裹熱熨之。冷卽再炒。

9. 普濟本事方<sup>11)</sup>

[治小便難小腹脹不急治殺人]

右用葱白三斤，細剉炒令熱，以帕子裹，分作兩處，更替熨臍下卽通。

10. 世醫得效方<sup>12)</sup>

[脫肛]

又方 用新甌磚一片燒紅，以醋燒之，氣上卽用脚布疊數重壓定，使熱氣上透，不可過熱，令病者以臀坐于布上，如覺布溫，逐旋減之，以常得溫熱爲度。

11. 外科精義<sup>13)</sup>

[熨風散]

羌活 防風 白芷 當歸 芍藥 細辛 芫花 吳茱

萸 官桂 異常各等分

右爲粗末，作二劑，赤皮葱蓮鬚細切半斤，同醃醋伴勻，炒令極熱，帛裹於瘡上熨之，稍冷卽換，藥熨之上下痛止而已。

12. 薛氏醫案<sup>14)</sup>

[卷三·流注]

皆屬虛損急用葱熨及益氣養榮湯則未成者消已成者潰。

[卷三·陰瘡]

神效蒜熨法

治虛怯人肢體患腫塊或作痛或不痛或風襲於經絡肢體疼痛或四肢筋攣骨痛又治流注跌撲損腫痛。

用葱頭細切杵爛炒熱敷患處冷易之再熨腫痛則止其效如神。

[卷十四·流注]

一男子 元氣虛弱腎腫硬而色不變飲食少思如此年餘矣。此氣血虛而未能潰也。先用六君子湯加川芎當歸芍藥元氣漸復飲食漸進患處漸潰更加黃芪肉桂併用葱熨之法。月餘俟膿熟而針之又以十全大補湯及附子餅熨之而愈

[卷十四·鶴膝風]

初起須用葱熨可以內消。

[卷十四·附骨疽]

皆宜灸熨患處解散毒氣補接陽氣溫補脾胃爲主。葱熨法能助陽氣行壅滯。

[卷十四·多骨疽]

陽氣虛寒者佐以八味丸益火之源以消陰翳外以

附子餅葱熨法祛寒邪補接帶氣則骨自脫瘡自斂矣.

13. 醫學入門<sup>15)</sup>

二石葵子冷熱熨不怕脬轉如塞.

[冷熱熨法]

先以冷物熨小腹幾次後以熱物熨如前數又以冷物熨之自通.

14. 萬病回春<sup>16)</sup>

[積聚]

時時灰火烤熱, 手摩熨之, 一貼可愈.

[小便閉]

治小便不通

用皮硝一合, 連葱一根搗爲一處, 用黃布攤在上, 似膏藥樣, 用熱瓦熨之則出.

15. 六科證治準繩<sup>17)</sup>

[外科·諸腫]

熨風散

治諸瘡因風致腫

羌活 防風 白芷 吳茱萸 細辛 當歸芍藥 芫花 官桂 各等分.

爲末作一劑赤皮葱連鬚細切半斤同醋醋伴勻炒令極熱帛裹於瘡上熨之稍冷即換藥再熨之上下痛止.

蠶沙方

治風腫

晚蠶沙 鹽 各不拘多少.

右相和炒熱布裹熨之冷即再炒各入醋少許尤佳.

16. 外科正宗<sup>18)</sup>

[乳癰主治方]

木香餅

治一切氣滯結腫成核, 或痛或閃肭風寒所傷.

木香 五錢 生地黃 一兩 搗膏

右木香爲末, 同地黃和勻, 量患處大小, 作餅貼上, 以熱熨斗熨之. 堅硬木痛者, 間日熨之.

17. 東醫寶鑑<sup>19)</sup>

[吹乳妬乳]

熨法

治吹乳妬乳, 蓮根葱白擣爛鋪患處, 上用瓦罐盛灰火, 蓋葱上一時蒸熱, 出汗即愈.

18. 證治彙補<sup>20)</sup>

[腹痛]

急救法

或用炒鹽, 或薑渣, 或麩皮炒熱, 絹包熨痛處, 冷即再炒再熨, 以愈爲度, 或用吐法亦可.

[霍亂]

急救法

心腹卒痛, 鹽斤許炒熱, 紙包紗護, 頓其胸腹, 煩以火熨, 覺熱氣透入即甦.

[秘結]

火熨法

用大黃一兩, 巴豆五錢爲末, 葱白十枚, 酒麴和成餅, 加麝香三分, 貼臍上, 布護火熨, 覺腹中響甚, 去之.

19. 瘡醫大全<sup>21)</sup>

[癰疽門膏藥主方]

神應方驗膏

貼一切無名腫毒大瘡惡疽, 無論已破未破不過

二, 三張即可收功.  
用時以井華凉水浸半日, 捻成片放布上, 熱湯熨火貼.

## 20. 外科選要<sup>22)</sup>

### [瘡口腐肉治法]

如小兒其母肝火生風者, 加味小柴胡湯, 次用加味逍遙散加蟻蛄, 天麻, 更外兼熨法.

## 고찰

熨法은 藥物을 炒熱 혹은 蒸煮하여 布로 싸거나 物品을 가열한 후에 직접 환부에 접촉하여 溫熱자극을 가하는 外治療法의 일종으로 腠理를 疏通하고 氣血을 流暢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때때로 揮發性을 띄는 酒, 醋를 加하고 芳香性藥物을 이용하여 藥力을 浸透시켜 溫熱作用을 배가시켜 사용하기도 한다<sup>1),23-5)</sup>.

현재 서양의학의 재활의학에서는 근골격계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溫熱治療를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으며 溫熱을 이용한 치료기구로 paraffin bath, mud pack, fomentation, kenny pack, compress, wet sheet pack, hydro collator, steam pack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sup>26-7)</sup>.

溫熱治療의 생리적인 효과로는 결체조직의 신장도 증가, 관절의 경직 완화, 동통 완화, 근경련의 감소, 혈류증가 및 염증반응의 국소화, 부종 및 혈종의 흡수 촉진, 효소 및 대사작용의 변화, 악성종양의 치료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동통, 근경련, 관절 구축, 긴장성근육통, 혈류촉진, 대사 작용의 촉진, 혈중흡수, 점액낭염, 건초염, 섬유 조직염, 표재성 혈전성 정맥

염, 반사성 혈관 확장 등의 유도, 콜라겐 혈관질환 등에 응용되고 있다<sup>26)</sup>.

한의학에서는 殷商시대의 甲骨文에서부터 藥熨法으로 질병을 치료한 것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의 여러 문헌에서 질병치료에 사용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膏藥이나 散劑의 外治療法만이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熨法을 포함한 기타 外治療法의 사용은 보편화되지 않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sup>1-2)</sup>.

이에 논자는 熨法에 대한 한방적 인식을 넓히고 熨法을 이용한 外治療法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熨法의 종류, 溫熱방법, 적응증에 대하여 文獻的考察을 실시하였다.

熨法의 종류에는 藥物을 이용하는 藥熨法과 物品을 사용하는 熨法의 두 가지가 있었고, 藥熨法은 處方을 이용하는 경우와 單一藥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處方을 이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黃帝內經 靈樞·壽夭剛柔篇<sup>4)</sup>>에서 “刺大人者, 以藥熨之. 黃帝曰 藥熨奈何?...以慰寒痺所刺之處, 令熱入至于病所...”이라 하여 處方을 사용하는 藥熨法의 방법에 대한 최초의 설명을 살펴 볼 수 있다. <外臺秘要<sup>8)</sup>>에서 “...搗土爲散, 搗粉肛門頭出處, 取皂莢灸暖, 更熨之遞”이라 하여 일부의 藥物을 散으로 만들고 하나의 藥物만을 가열하여 熨法을 시행하였고 <備急千金要方<sup>9)</sup>>에서는 “生地黃 三升, 芒硝 三合, 豉 一升. 右取研末槌二枚炙令熱...以槌更五熨之...”이라 하여 구성 藥物을 모두 가열하여 熨法을 시행하였다. <聖濟總錄<sup>10)</sup>>에서는 “...右取葱津一蛤蜊殼許, 入膩粉調如泥...”이라 하여 藥物과 葱白을 혼합하여 熨法을 시행하였고 “...以綿裹熱熨之. 冷即再炒.”이라 하여 식으면 다시 가열하여 사

용하였다. <外科精義<sup>13)</sup>>에서는 “…同醞醋伴勻, 炒令極熱, 帛裹於瘡上熨之…”이라 하여 醋炒를 이용하여 藥物을 가열하였고 <六科證治準繩<sup>17)</sup>>에서는 “…右相和炒熱布裹熨之冷即再炒各入醋少許尤佳”이라 하여 식은 후에 다시 가열할 때 醋炒를 이용하였다. <外科正宗<sup>18)</sup>>에서는 “…作餅貼上, 以熱熨斗熨之…”이라 하여 藥物을餅의 형태로 만든 후 熨法을 시행한 경우를 볼 수 있으며 “…堅硬木痛者, 間日熨之”이라 하여 사용간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證治彙補<sup>20)</sup>>에서는 “…酒麴和成餅…布護火熨…”이라 하여 酒麴과 藥物을 섞어餅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單一藥物을 이용한 경우를 살펴보면 <普濟本事方<sup>11)</sup>>에서는 “右用葱白三斤, 細剉炒令熱, 以帕子裹, 分作兩處, 更替熨臍下即通”이라 하여 葱熨法을 시행한 경우를 볼 수 있고 <薛氏醫案<sup>14)</sup>>에서는 “皆屬虛損急用葱熨及…”이라 하여 葱熨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用葱頭細切杵爛炒熱敷患處…”이라 하여 葱熨法의 방법에 대한 설명을 살펴 볼 수 있고 “葱熨法能助陽氣行壅滯…”, “…以附子餅葱熨法祛寒邪…”이라 하여 葱熨法의 효능을 살펴 볼 수 있으며 <萬病回春<sup>16)</sup>>에서는 “用皮硝一合, 連葱一根搗爲一處, 用真布攤在上, 似膏藥樣, 用熱瓦熨之則出.”이라 하고 <東醫寶鑑<sup>19)</sup>>에서는 “治吹乳妬乳, 蓮根葱白搗爛鋪患處, 上用瓦罐盛灰火, 蓋葱上一時蒸熱, 出汗即愈”이라 하여 瓦 및 瓦罐을 이용하여 葱熨法을 시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肘後備急方<sup>5)</sup>>에서는 “削柳根皮熟搗火溫帛裹熨之冷更易大良”이라 하고 <小品方<sup>6)</sup>>에서는 “柳白皮, 酒煮令熱, 以熨上則消”이라 하여 柳根白皮를 이용하였으며 酒煮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外臺秘要<sup>8)</sup>>에서는 “取枳實, 燻灰中煨之,

乃熱熨病上…”, “仍取豬槽木厚如匙面, 火炙, 數數熨上.”이라 하여 枳實, 豬槽木을 이용하여 熨法을 시행하였다. <薛氏醫案<sup>14)</sup>>에서는 “月餘俟膿熟而針之又以十全大補湯及附子餅熨之而愈”이라 하여 附子餅을 이용하였고 <證治彙補<sup>20)</sup>>에서는 “或用炒鹽, 或薑渣, 或麩皮炒熱, 絹包熨痛處, 冷即再炒再熨, 以愈爲度, 或用吐法亦可”이라 하여 鹽, 薑渣, 麩皮를 이용하여 熨法을 시행하였다.

藥物없이 熨法을 시행한 경우를 살펴보면 <小品方<sup>6)</sup>>에서는 “熬石灰令熱, 布裹熨之, 隨按令入, 冷則易熬石灰令熱, 布裹熨之, 隨按令入, 冷則易”이라 하여 藥物없이 熬石灰를 사용하였고 <諸病源候論<sup>7)</sup>>에서는 “…其湯熨針石別有正方補養宜導今附於後”이라 하여 藥物 없이 針石을 사용하였고 <世醫得效方<sup>12)</sup>>에서는 “又方用新磚一片燒紅, 以醋燒之…”이라 하여 藥物 없이 磚을 사용하였다.

溫熱방법에 있어 藥物을 직접 가열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다른 도구를 가열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외에 冷熨와 熱熨를 번갈아 시행하는 경우를 살펴 볼 수 있었다.

溫熱방법에 있어 대부분 藥物을 직접 가열하여 熨法을 시행하였으나 <小品方<sup>6)</sup>>에서는 “熬石灰令熱, 布裹熨之, 隨按令入, 冷則易熬石灰令熱, 布裹熨之, 隨按令入, 冷則易”이라 하여 熬石灰를 사용하였고 <諸病源候論<sup>7)</sup>>에서는 “…其湯熨針石別有正方補養宜導今附於後”이라 하여 針石을 사용하였고 <聖濟總錄<sup>10)</sup>>에서는 “…熱手熨, 須臾即通.”이라 하여 熱手를 이용하였고 <外科正宗<sup>18)</sup>>에서는 “…作餅貼上, 以熱熨斗熨之…”이라 하여 熨斗를 이용하였고 <世醫得效方<sup>12)</sup>>에서는 “又方用新磚一片燒紅, 以醋燒之…”이라 하여 磚을 사용하였고 <萬病回春

16>에서는 “...用熱瓦熨之則出”이라 하여 瓦를 이용하였고 <東醫寶鑑<sup>19)</sup>>에서는 “...上用瓦罐盛灰火, 蓋葱上一時蒸熱, 出汗即愈”이라 하여 瓦罐을 이용하였다. 이외에 <醫學入門<sup>15)</sup>>에서는 “[冷熱熨法]先以冷物熨小腹幾次後以熱物熨如前數又以冷物熨之自通”이라 하여 冷熨와 熱熨를 번갈아 행하는 冷熱熨法의 명칭과 방법을 볼 수 있다.

熨法の 적용증에 있어 筋病, 乳房疾患, 前陰疾患, 後陰疾患, 瘡, 疽, 流注 등의 外科분야 뿐만 아니라 寒痺, 厥, 霍亂, 積聚, 腹痛, 小便·大便疾患 등의 內科분야에도 사용된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外科疾患 중 筋病에는 <黃帝內經 素問·血氣形志論<sup>3)</sup>>에서는 “形苦志樂, 病生于筋, 治之以熨之”이라 하여 熨法을 이용하였다. 乳房疾患에는 <肘後備急方<sup>5)</sup>>에서는 “葛氏婦人乳癰妬腫, 削柳根皮熟搗火溫帛裹貯熨之...”이라 하여 乳癰妬腫에 이용하였고 <小品方<sup>6)</sup>>에서는 “治乳癰妬乳生瘡諸方...柳白皮, 酒煮令熱, 以熨上則消”이라 하여 乳癰妬乳生瘡에 이용하였고 <外臺秘要<sup>8)</sup>>에서는 “治乳癰腫方...仍取猪槽木厚如匙面, 火炙, 數數熨上”이라 하여 乳癰腫에 이용하였고 <備急千金要方<sup>9)</sup>>에서는 “治妬乳乳癰腫方...令熱以絮及故帛噓乳上以槌更五熨之瘥止已用立效”이라 하여 妬乳乳癰腫에 이용하였고 <外科正宗<sup>18)</sup>>에서는 “乳癰主治方...作餅貼上, 以熱熨斗熨之. 堅硬木痛者, 間日熨之”이라 하여 乳癰에 이용하였고 <東醫寶鑑<sup>19)</sup>>에서는 “治吹乳妬乳熨法...”이라 하여 吹乳妬乳에 이용하였다. 前陰疾患에는 <諸病源候論<sup>7)</sup>>에서는 “虛勞陰下痒濕候...其湯熨針石別有正方補養宜導今附於後.”이라 하여 陰下痒濕에 이용하였다. 後陰疾患에는 <小品方<sup>6)</sup>>에서 “若腸隨肛出方. 熬石

灰令熱, 布裹熨之...”이라 하여 腸隨肛出에 이용하였고 <外臺秘要<sup>8)</sup>>에서는 “熨痔法, 痔頭出, 或疼痛不可堪忍方...”, “肛門凸出, 壁土散方...取自莢灸暖, 更熨之遞, 取入則止”이라 하여 痔頭出과 肛門凸出에 이용하였고 <聖濟總錄<sup>10)</sup>>에서는 “治氣痔脫肛 熏熨方...”, “治諸痔有頭, 疼痛不可忍 積穀散熨方...”이라 하여 氣痔脫肛과 諸痔有頭疼痛不可忍에 이용하였고 <世醫得效方<sup>12)</sup>>에는 “脫肛...用新磚一片燒紅...令病者以臀坐于布上, 如覺布溫, 逐旋減之, 以常得溫熱爲度”이라 하여 脫肛에 이용하였다. 瘡의 치료에는 <外科精義<sup>13)</sup>>에서는 “...帛裹於瘡上熨之...”이라 하여 瘡에 이용하였고 <薛氏醫案<sup>14)</sup>>에서는 “陰瘡. 神效蒜熨法. 治虛怯人肢體患腫塊或作痛...”이라 하여 陰瘡에 이용하였고 <六科證治準繩<sup>17)</sup>>에서는 “熨風散. 治諸瘡因風致腫...”, “蠶沙方. 治風腫...”이라 하여 諸瘡因風致腫와 風腫에 이용하였고 <瘍醫大全<sup>21)</sup>>에서는 “...貼一切無名腫毒大瘡惡疽...熱湯熨火貼”이라 하여 無名腫毒大瘡惡疽에 이용하였고 <外科選要<sup>22)</sup>>에서는 “瘡口腐肉治法...如小兒其母肝火生風者, 加味小柴胡湯, 次用加味逍遙散加蜈蚣, 天麻, 更外兼熨法”이라 하여 瘡口腐肉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薛氏醫案<sup>14)</sup>>에서는 “流注...急用葱熨及益氣養榮湯則未成者消已成者潰”, “流注...併用葱熨之法”, “鶴膝風...初起須用葱熨可以內消”, “附骨疽...皆宜灸熨患處解散毒氣...”, “多骨疽...外以附子餅葱熨法祛寒邪補接帶氣則骨自脫瘡自斂矣”이라 하여 流注, 鶴膝風, 附骨疽, 多骨疽 등에 이용하였다.

熨法이 이용된 內科疾患을 살펴보면 <黃帝內經 靈樞·壽夭剛柔篇<sup>4)</sup>>에서는 “黃帝曰 刺寒痺內熱奈何? 伯高答曰 刺布衣者, 以火焯之. 刺大人者, 以藥熨之”이라 하여 寒痺에 熨法을



이용하였고 <黃帝內經 靈樞·刺節眞邪篇<sup>4)</sup>>에서는 “治厥者，必先熨調和其經…”이라 하여 厥에 이용하였다. <證治彙補<sup>20)</sup>>에서는 “腹痛…絹包熨痛處，冷卽再炒再熨，以愈爲度，或用吐法亦可.”, “霍亂…心腹卒痛，鹽斤許炒熱，紙包紗護，頓其胸腹，煩以火熨，覺熱氣透入卽甦”이라 하여 腹痛과 霍亂에 이용하였고 <萬病回春<sup>16)</sup>>에서는 “積聚…時時灰火烤熱，手摩熨之，一貼可愈”이라 하여 積聚에 이용하였다. 小便·大便疾患에는 <聖濟總錄<sup>10)</sup>>에서는 “治膀胱積熱，風毒氣脹。小便不通方…熱手熨，須臾卽通”이라 하여 小便不通에 이용하였고 <普濟本事方<sup>11)</sup>>에서는 “治小便難小腹脹不急治殺人…更替熨臍下卽通”이라 하여 小便難에 이용하였고 <醫學入門<sup>15)</sup>>에서는 “二石葵子冷熱熨不怕脬轉如塞”이라 하여 脬轉에 이용하였고 <萬病回春<sup>16)</sup>>에서는 “治小便不通…用熱瓦熨之則出”이라 하여 小便不通에 이용하였고 <證治彙補<sup>20)</sup>>에서는 “秘結…貼臍上，布護火熨，覺腹中響甚，去之.”이라 하여 秘結에 이용하였다.

以上的 내용으로 볼 때 熨法의 종류는 藥物을 이용하는 藥熨法과 物品을 사용하는 熨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藥熨法은 處方을 이용하는 경우와 單一藥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單一藥物을 이용하는 경우는 葱白을 사용하는 葱熨法이 가장 많았고 榆根白皮, 枳實, 豬槽木, 附子餅, 鹽, 薑渣, 麩皮 등이 이용되었다. 藥物없이 物品만으로 熨法을 시행한 경우에는 熬石灰, 針石, 磚 등이 그 도구로 사용되었다.

熨法의 溫熱방법은 藥物을 직접 가열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다른 도구를 가열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외에 冷熨와 熱熨를 번갈아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藥物을 직접 가열

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藥物을 炒熱하거나 蒸煮하여 사용하였고 때로는 醋, 酒를 加하여 炒熱하거나 蒸煮하였으며 處方構成藥物중 모든 藥物을 가열하지 않고 일부의 藥物만을 가열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도구를 가열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石, 針石, 磚 등의 도구만을 단독으로 가열하여 熨法을 시행하는 경우와 熱手, 熨斗, 瓦, 瓦管을 이용하여 藥物위로 溫熱자극을 행하는 熨法이 있었다. 그리고 冷熨와 熱熨를 번갈아 시행하는 冷熱熨의 방법도 있었다.

熨法의 적용증은 外科의으로는 乳癰妬腫, 乳癰妬乳生瘡, 乳癰腫, 妬乳乳癰腫, 乳癰, 吹乳妬乳 등의 乳房疾患과 腸隨肛出, 痔頭出, 肛門凸出, 氣痔脫肛, 諸痔有頭, 脫肛 등의 後陰疾患 및 瘡, 陰瘡, 諸瘡因風致腫, 無名腫毒大瘡惡疽, 瘡口努肉 등의 瘡에 다용되었고 筋病, 流注, 多骨疽, 附骨疽, 鶴膝風 등에 이용하였고 內科의으로는 寒痺, 厥, 霍亂, 積聚, 腹痛, 秘結 등에 이용하였고 특히 小便不通, 小便難, 脬轉 등의 小便질환에 다용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熨法의 종류나 방법에 따른 적용증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서양의학에서는 炎症반응의 국소화, 浮腫 및 血腫의 흡수 촉진, 악성종양, 근 경련의 감소, 관절의 경직 완화, 복부 가열을 통한 장운동의 감소 및 위산분비의 감소 등에 溫熱治療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熨法의 적용증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앞으로 熨法을 이용한 溫熱療法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다양한 臨床的 活用이 기대된다<sup>26)</sup>.

## 결론

熨法에 관한 文獻의 考察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熨法은 藥物을 炒熱 혹은 蒸煮하거나 物品을 가열한 후에 직접 환부에 접촉하여 溫熱 자극을 가하는 外治療法의 일종이다.

2. 熨法의 종류는 藥物을 이용하는 藥熨法과 藥物없이 物品을 사용하는 熨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藥熨法은 處方을 이용하는 경우와 單一藥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單一藥物을 이용하는 경우는 葱白을 이용하는 葱熨法이 가장 많았다. 藥物없이 物品만으로 熨法을 시행한 경우에는 熬石灰, 針石, 磚 등이 그 도구로 사용되었다.

3. 熨法의 溫熱방법은 藥物을 직접 가열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도구를 가열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외에 冷熱熨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藥物을 직접 가열하는 경우는 藥物을 炒熱하거나 蒸煮하여 사용하였고 도구를 이용할 때는 熬石灰, 針石, 磚 등을 단독으로 가열하여 熨法을 시행하거나 熱手, 熨斗, 瓦, 瓦管 등을 이용하여 藥物위로 熨法을 시행한다. 冷熱熨는 冷熨와 熱熨를 번갈아 시행하는 방법이다.

4. 熨法의 적응증은 外科의으로는 乳癰, 吹乳, 妬乳 등의 乳房疾患과 痔頭出, 脫肛 등의 後陰疾患 및 瘡에 다용되었고 筋病, 流注, 多骨疽, 附骨疽, 鶴膝風 등에 이용하였으며 內科의

으로는 寒痺, 厥, 霍亂, 積聚, 腹痛, 秘結에 이용하였고 小便不通, 小便難, 脬轉 등의 小便疾患에 다용되었다.

이상과 같이 熨法은 임상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임상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尙德俊. 外科外治療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56-7.
2. 申光浩. 韓醫外治療法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3.
3. 楊維傑. 黃帝內經素問 釋解. 서울: 一中社. 1991: 214.
4. 楊維傑. 黃帝內經靈樞 釋解. 서울: 一中社. 1991: 73-4, 541, 545.
5. 葛洪. 肘後備急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90-1.
6. 陳延之. 小品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214, 224.
7. 巢元方. 諸病源候論. 北京: 集文書局. 1986: 49.
8. 王燾. 外臺秘要. 北京: 華夏出版社. 1993: 498, 501, 679.
9.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733.
10. 趙佶.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679, 2345, 2355.
11. 許叔微. 普濟本事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48.
12. 危亦林. 世醫得效方. 北京: 中國中醫藥出

- 版社. 1996: 214.
13. 齊德之. 外科精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62.
  14. 薛己. 薛氏醫案.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71, 85, 327-8, 333-4.
  15. 李梴. 國譯篇註醫學入門IV. 서울: 南山堂. 1991: 763.
  16. 龔廷賢.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178, 244.
  17. 王肯堂. 六科證治準繩 外科篇. 서울: 대성문화사. 1992: 374.
  18. 陳實功. 外科正宗.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179.
  19. 東醫寶鑑國譯委員會.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1999: 689.
  20. 李用粹. 證治彙補. 台北: 旋風出版社. 1976: 349, 355, 465.
  21. 顧世澄. 瘍醫大全: 劉忠德, 劉鵬學, 薛風奎. 外科卷(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6: 1037.
  22. 唐囊. 外科選要: 劉忠德, 劉鵬學, 薛風奎. 外科卷(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6: 1091.
  23. 顧伯康. 中醫外科學. 台北: 知音出版社. 1989: 73.
  24. 李超. 中醫外治法簡編. 湖北: 湖北人民出版社. 1977: 118.
  25. 上海中醫學院. 中醫外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49.
  26. 김진호, 한태륜. 재활의학. 서울: 군자출판사. 1999: 27-41.
  27. 전국한의과대학 재활의학과교실. 동의재활의학과학. 서울: 서원당. 1995: 485.